KMI CHINA Research Center

KMI 중국리포트

KMI CHINA REPOR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中國 上海市 長寧區 遵義路 100號 虹橋上海城 A-1803
Tel.+86-21-6090-0395~6, Fax.+86-21-6090-0397

제15-5호
2015년 4월 20일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5년 중국 국가해양국 총예산
▸ 이슈 포커스
: 중국 해양산업 주요 성과·전망 및 시사점
▸ 동향 & 뉴스

▣ 2015년 중국해양국 해양관리 사업 부문별 예산

(단위: 만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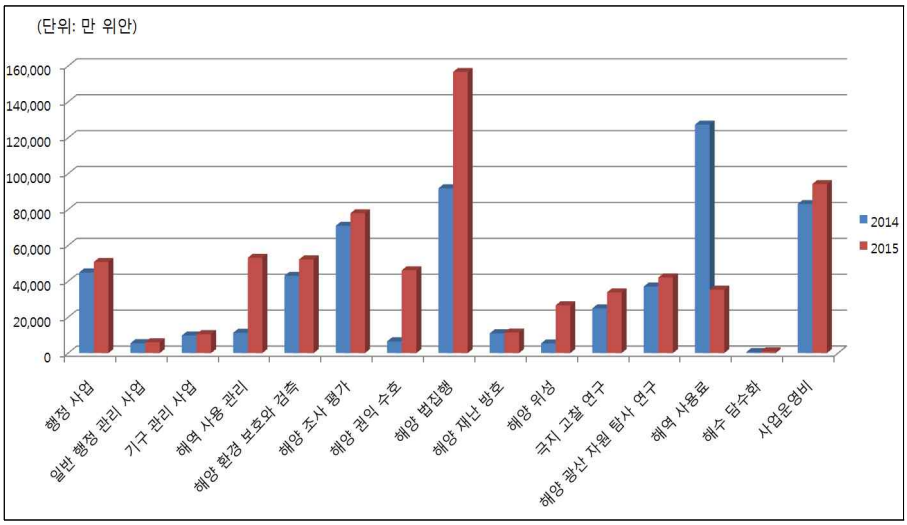
	사업부문	예산
1	해양 관리 사업	862,358.61
2	행정 사업	50,783.06
3	일반 행정 관리 사업	6,034.29
4	기구 관리 사업	10,526.81
5	해역 사용 관리	53,118.00
6	해양 환경 보호와 관측	52,195.93
7	해양 조사 평가	77,921.09
8	해양 권익	46,135.94
9	해양 법집행	156,663.32
10	해양 재난 방호	11,453.32
11	해양 위성	26,661.98

자료 : 중국국가해양국.

중국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원을 「KMI 중국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KMI All Rights Reserved.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5년 중국 국가해양국 총예산



자료 : 중국국가해양국(http://www.soa.gov.cn) ; KMI 작성.

2015년 총예산 105억 4,449만 위안, 전년대비 8.6% 증가

4월 17일 공표된 중국 국가해양국 2015년 총예산은 전년대비 8.6% 증가된 105억 4,449만 위안이다. 이 가운데 해양관리 사업 지출 예산[1]이 전체의 8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13.2%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주요 해양관리업무 예산을 살펴보면 해양법집행 활동이 15억 6,663만 위안으로 가장 높다. 2014년과 비교해 해양권익수호 분야가 726%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해양위성(497%), 해역사용관리(471%)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5년은 중국 해양강국 기반 구축을 위한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우선 해양기본법 제정을 통해 해양강국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완비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무원의 21세기 해양실크로드 전략 로드맵을 통해 국가 및 각 성급 차원의 해양발전 및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본격 출범을 계기로 아시아 주변국 항만물류 인프라 투자 확대와 연계한 해양산업 발전이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 이 예산항목 명칭은 국토해양기상등지출(国土海洋气象等支出)임. 국가해양국 예산항목 해석에 의하면, 이는 국가해양국의 해양관리사무 지출을 반영하고 있는 항목임.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5년 중국 국가해양국 총예산
▸ 이슈 포커스
: 중국 해양산업 주요 성과·전망 및 시사점
▸ 동향 & 뉴스

지수 동향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01-09	04-17
종합지수	1,060.66	951.55
일본 항로	648.92	672.34
구주 항로	1,319.07	1,091.68
미서부 항로	1008.26	956.43
미동부 항로	1,399.88	1,287.19
한국 항로	701.22	667.73

주 : '01-09' 2015년 1월 9일 지수.
자료 : 상하이 항운교역소.

CHINA COASTAL BULK FREIGHT INDEX

	01-09	04-17
종합지수	892.58	821.35
석탄	918.44	837.52
곡물	717.13	588.77
금속광석	760.29	686.88
정유	1,215.40	1,215.40
원유	1,597.14	1,597.14

자료 : 상하이 항운교역소.

이슈 포커스 : 중국 해양산업 주요 성과 · 전망 및 시사점

지난 3월 양회에서 눈에 띄는 기록이 있다. 리커창 총리가 보고한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 '해양(海洋)'이라는 단어가 총7번 언급된 것이다. 이는 총9번 언급된 자유무역지대(自贸区)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2] 중국이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带一路)'가 3번 언급되었음을 감안할 때 중국이 2015년 해양 분야 성과에 걸고 있는 기대와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다.[3] 실제로 양회 이후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전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향후 중국 해양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7월에는 전국 단위에서는 최초로 시행된 전국해양경제조사 성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진행하게 될 해양산업 진흥정책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해양경제특별구역법의 연내 제정 추진을 통한 해양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마련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전략을 통해 발현될 중국의 해양산업 잠재력을 중국 해양경제특구를 통해 살펴보고, 향후 전망과 함께 우리나라 해양산업 발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1 중국 해양산업 주요 현황

1. 해양산업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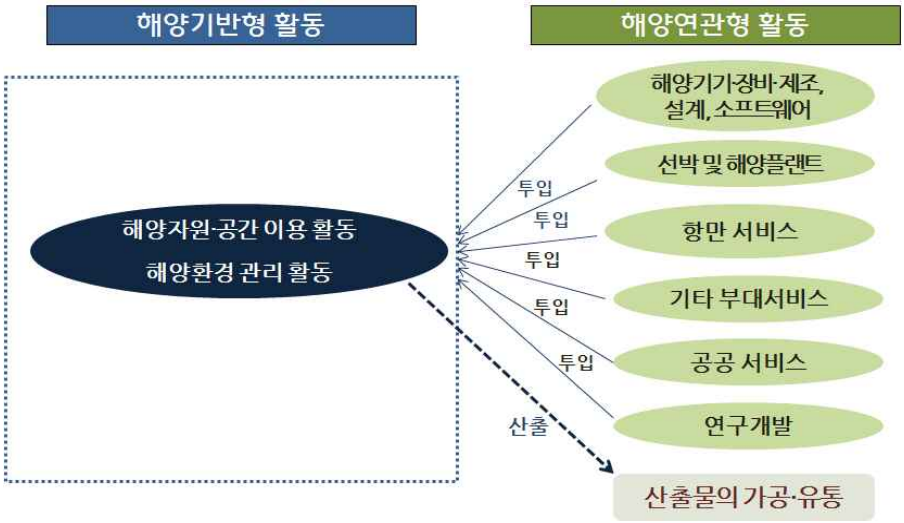
해양산업은 간단히 말해 해양에서 직접 이뤄지는 해양기반형 경제활동(어업, 해양자원개발, 해양관광, 해운 등의 해양공간 이용 등) 과 해양과 관련되어 있는 해양 연관형 경제활동(조선, 항만, 해양식품, 해양장비 등)을 포함한다. 다만 해양산업을 구성하는 경제활동들에 대한 범위 설정의 문제는 국가별로 동일하지는 않다. 이는 해양산업 체계 분류를 위한 국제적 기준이 존재하고 있지 않고, 각 국가의 해양이 가지는 특수한 상황이 또한 고려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양공공서비스의 경우 중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해양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미국, 호주, 일본 등은 제외하고 있다.[4] 중국의 경우 2006년 말 국가표준으로 '해양 및 연관산업 분류체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2개 주요 해양산업, 10개 공공서비스 분야 및 6개 해양연관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5]

2) 중국항무주간(中国港务周刊), 2015년 제11기, 2015.3.18, p34
3) 양회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해양대국으로서 해양전략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고, 해양생태환경을 보호하며, 해양기술 수준을 제고한다. 해양종합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해양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하여 해상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양국 및 다국적 해양협력 확대를 통해 해양강국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 황기형 외, 해양총생산(GOP) 추계 및 증대방안 연구, KMI, 2011.12, p20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5년 중국 국가해양국 총예산
▸ 이슈 포커스
: 중국 해양산업 주요 성과·전망 및 시사점
▸ 동향 & 뉴스

[그림1] 해양경제활동의 기술적 연관 관계



출처 : 황기형 외, 해양총생산(GOP) 추계 및 증대방안 연구, KMI, 2011.12, p18

2. 중국 해양산업 발전 단계

중국 해양산업은 중국 정치경제 발전과 연관되어 성장해 왔다. 중국의 해양산업발전은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다.[6] **첫째**, 해양산업 초기단계(1949~1965)로 어업, 해운, 염전업 등 전통 해양기반형 산업이 주로 이뤄진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해양산업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편입되어 정부주도로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다. **둘째**, 해양산업 발전단계(1966~1977)로 중앙정부 차원의 해양행정담당부서가 설립되는 등 어느 정도의 해양산업 발전 기반을 이루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시기로 해양개발 또는 발전 보다는 해양환경조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셋째**, 해양산업의 종합적 발전단계(1978~1990)로 해양정책 대외개방, 해양산업 시장메커니즘 도입으로 요약된다. 선진국으로부터의 해양산업 기술 및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앙정부의 통제가 아닌 시장의 자율적인 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를 통해 종합적 해양경제체제 기반을 구축했다. **넷째**, 종합적 해양경제체제 추진단계(1991~2002)로 중국의 해양 관리 정책과 산업 정책이 점차 통합되는 시기로 해양생태계와 해양산업의 동반성장에 초점이 맞춰진 시기이다. 해양산업을 통한 해양총생산액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의 동반 성장이 시작된 시기이다. **다섯째**, 법제도 공고화를 통한 해양산업성숙단계(2003~현재)로 중국 해양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의 법제도 기반이 구축되는 단계이다.[7] 시작은 2003년 국무원

5) 중국의 12개 주요 해양산업의 경우 수산업, 해양석유가스, 해양광업, 해양염전업, 조선산업, 해양화학공업, 해양생의학산업, 해양공학 및 건설업, 해양발전산업, 해수이용업, 해운, 연안관광 등이다. 이상 KIMST, '해양산업 분류체계 수립 및 해양산업의 역할과 성장전망 분석을 위한 기획연구', 2011.10, p38 참조

6) XZ Ziang 외 2인, 'China's marine economy and regional development', Marine Policy 50, 2014의 4단계 분류에 최근의 중국 해양산업 진흥개발 동향을 추가하여 최종 5단계로 분류하여 제시함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5년 중국 국가해양국 총예산
▸ 이슈 포커스
: 중국 해양산업 주요 성과·전망 및 시사점
▸ 동향 & 뉴스

의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해양경제 구조고도화와 해양산업 발전 내용을 담은 '전국 해양경제 발전계획'의 마련이다. 2008년 국무원의 '해양사업 발전 계획 강요', 2009년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블루이코노미 경제(해양경제)'의 해양국가 발전모델 제시 등을 거치면서 2011년 3월 제11기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된 '제12차 5개년계획(2011~2015)'에서 별도의 장으로 '해양산업발전 촉진'이 명문화되었다. 이 계획을 통해 해양경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둥성, 저장성, 광둥성 등 3개 지역을 국가급 해양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 또한 2011년에 산동, 상하이, 저장, 광동 등 5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해양산업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2014년에 이를 전국단위로 확대 실시했다.

3. 중국 해양경제특구 운영 현황

중국의 해양경제구는 크게 북부, 동부, 남부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8] 북구 해양경제구의 경우, 랴오닝(辽宁), 허베이(河北), 텐진 및 산동 등으로 구성된다. 2013년 해양생산총액은 1조 9,734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전국해양생산총액의 36.6%를 차지했다. 해수양식업, 해양석유가스업, 해운물류 등이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산동의 경우 2011년 1월 국무원이 승인한 '산동반도 블루경제구발전계획(山东半岛蓝色经济区发展规划)을 통해 해양경제특구로 지정되었다. 칭다오시를 중심으로 중국 최초 해역사용관리조례가 시행중에 있으며, 2015년까지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텐진의 경우 해양경제과학발전시범구(天津海洋经济科学发展示范区规划)가 2013년 국무원의 승인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를 통해 2015년까지 해양총생산액을 전체 텐진시 지역GDP의 33%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9]

동부 해양경제구의 경우 장쑤(江苏), 저장(浙江) 및 상하이 등으로 구성된다. 2013년 해양생산총액은 1조 6,485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전국해양생산총액의 30.4%를 차지했다. 이 지역의 경우 항만, 어업을 비롯해 중국의 주요 해양공정 장비, 제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기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저장성의 경우, 2011년 3월 절강해양경제발전시범구계획(浙江海洋经济发展示范区规划)에 의해 해양경제특구가 설립되었다. 저장성은 닝보-저우산으로 이어지는 세계1위 화물물동량이 강점이며, 특히 저우산군도가 저장, 산둥, 광둥의 해양경제시범구에 이어 중국의 4번째 해양경제신구로 지정되어 명실상부한 중국해양경제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남부 해양경제구의 경우 푸젠(福建), 광동(广东), 광시(广西), 하이난(海南) 등으로 구성된다. 2013년 해양생산총액은 1조 1,284억 위안으로 전국해양생산총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수출지향형 경제로 특히 해양관광, 해수양식, 원양어업, 해운물류, 해양석유가스업, 해양생물의약업 등 다방면에

7) 이하 내용은 부산광역시, '중국 해양경제발전 추진계획 및 시사점 -국가급 3대 해양경제 육성 시범구 중심으로-', 2012.1, p2~4 참조
8) 3개 해양경제구 2013년 주요 성과 등 주요 수치는 중국신문망, 2015.1.5일자 기사 참조
9) 新华网, 2013.9.9일자 기사 참조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5년 중국 국가해양국 총예산
▸ 이슈 포커스
: 중국 해양산업 주요 성과·전망 및 시사점
▸ 동향 & 뉴스

서 상대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광둥성의 경우 광동해양경제종합시험구발전계획(广东海洋经济综合试验区发展规划)이 2011년 7월 국무원 승인을 얻음으로써 세 번째 해양경제특구 시범구로 지정되었다. 해양경제를 통해 2015년까지 광동성 지역GDP의 25%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2012년 12월 국무원은 푸젠해양블루경제시범구발전계획(福建海洋蓝色经济试验区发展规划)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푸젠성이 산동, 절강, 광동의 국가해양경제발전시범구, 저우산 해양경제신구에 이어 중국의 제5의 해양경제특구로 지정되었다.[10] 중국은 이처럼 별개의 해양특구가 가지는 특색및 장점을 극대화하고 각 해양지역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해양강국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표1] 중국 3대 해양경제특구 시범구 개요

구분		산둥	저장	광둥
계획명칭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발전계획	저장성 해양경제발전 시범구 계획	광둥성 해양경제 종합실험구 발전계획
발표시기		2011. 1	2011. 3	2011. 7
개발기간		2011~2020	2011~2020	2011~2020
개발 면적	해역	15만 9,500㎢	26만㎢	41만 9,000㎢
	육지	6만 4,000㎢	3만 5,000㎢	8만 4,000㎢
목표 (2015)	지역내 총 생산(GRDP)	-	2조 6천억 위안	-
	해양산업총생산액	-	7천억 위안	1조5천억 위안
	해양산업 연평균성장율	15%이상	-	12.6%
인프라 및 자원		1만톤급 접안가능 해양석유가스 23.8억톤	1만톤급 이상접안 해안선 506km 닝보-저우산항 세계1위 화물물동량	천연가스 1133억~1699억㎥, 해수양식 면적 2100㎢
주요산업		어업, 제염업, 해양플랜트, 전략산업 등	해운, 조선, 석유화학, 해수담수화 등	교통운수, 관광, 석유화학 등
기타사항		중국 최초 해역사용관리조례 실행	저우산군도 일대 중국 4번째 신구 지정(해양경제 최초)	

자료 : '중국 해양경제발전 추진계획 및 시사점', 부산광역시, 2012.1

2 2014년 중국 해양산업 주요 성과

지난 3월 18일 국가해양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해양총생산액[11]은 전년대비 7.7%의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금액으로는 약 6조 위안(약 9,587억 달러)을 달성했다.[12] 이는 2014년 중국경제성장률 7.4%를 웃도는 수치이며, 전체

10) 和迅新闻, 2012.11.09일자 기사
11) 해양총생산액은 GDP와 비견해 GOP로 나타낸다. 중국의 경우, 해양경제생산총가치의 약칭인 해양생산총치(海洋生产总值)로 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해양총생산액으로 통일하여 쓴다.
12) 국가해양국, 2014년 중국해양경제통계공보(2014年中国海洋经济统计公报), 2015.3.18. 이하 2014년 중국 해양경제 성과 주요 수치는 공보의 통계수치에 따른 것임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5년 중국 국가해양국 총예산
▸ 이슈 포커스
: 중국 해양산업 주요 성과·전망 및 시사점
▸ 동향 & 뉴스

GDP(63.6조 위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달하였다. 참고로 '11.5계획' 기간 해양생산총액은 연평균 13.5% 증가했는데, 2011~2013년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8.5%에 머물렀다.[13] 산업별 비중은 1차 산업 5.4%, 2차 산업 45.1%, 3차 산업 49.5%로 해양산업 서비스업종인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4년 전국 해양 분야 종사자 수는 3,554만 명에 이르렀다. 해양산업 유형별로는 연안관광 8,882억 위안, 해상교통운수업 5,562억 위안, 어업 4,293억 위안, 해양공정건축업 2,103억 위안, 해양선박업 1,387억 위안 순으로 나타났다.

[표2] 2014년 중국해양총생산 통계 개요

분류	금액(억 위안)	전년대비 증가율(%)
해양총생산액	**59,936**	**7.7**
1. 해양산업	**35,611**	**8.1**
1) 주요 해양산업	25,156	8.1
해양어업	4,293	6.4
해양석유가스업	1,530	-5.9
해양광업	53	13.0
해양염업	63	-0.4
해양화공업	911	11.9
해양생물의약업	258	12.1
해양전력업	99	8.5
해수이용업	14	12.2
해양선박공업	1,387	7.6
해양공정건축업	2,103	9.5
해상교통운수업	5,562	6.9
연안관광	8,882	12.1
2) 해양과학연구교육관리	**10,455**	**8.1**
2. 해양 관련 산업	**24,325**	**-**

자료 : 2014년 중국해양경제통계공보(2014年中国海洋经济统计公报), 2015.3.18.

지역별로 살펴보면 환발해지역의 해양총생산액이 2조 2,152억 위안으로 전국 총액 대비 비중은 37%를 기록했다. 장강삼각주 지역의 경우 1조 7,739억 위안으로 29.6%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강삼각주 지역은 1조 2,484억 위안으로 20.8%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환발해지역이 0.6% 증가한 반면, 주강삼각주의 경우 0.8% 감소했다.

중국 해양경제특구 주요도시를 살펴보면, 저우산의 경우 2014년 해양총생산액은 2,453억 위안이었으며, 전년 대비 15.1%의 증가세를 보였다. 주목할 것은 해양경제가 지역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8%에 달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70%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14] 2014년에 칭다오시는 '一谷两区[15]'의 기치 아래 해양산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2014년 해양총생산액은 6,72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4.7% 상승했다. 해양경제가 지역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로 전년대비 0.8% 늘어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해양서비스업인 제3차 산

13) 2014년 주요 수치에 대한 정보는 中国新闻网, 2015.3.18일자 기사 참조. 新华网, 2014.12.04일자 기사 참조
14) 中国海洋食品网, 2015.2.2일자 기사 참조
15) '一谷'는 '블루이코노미 해양특구', "两区'는 '서해경제신구 및 홍다오(红岛)경제구'를 지칭함

업이 49.1%의 비중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16] 한편 푸젠성 발개위에 따르면 2014년에 푸젠성은 총 158개 해양경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총 341억 위안을 투자했다고 밝혔다.[17]

3 제1차 전국해양경제조사사업 성과, 2015년 7월 발표 예정

중국정부의 해양통계작업은 공식적으로는 1990년 들어오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 국가해양국이 '해양통계지표체계 및 지표해석'을 마련하고, 이듬해에 통계국, 국가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해양통계작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1995년 최초로 '중국해양통계년감'을 출판하고, 2004년에는 최초로 '해양경제 통계공보'를 발간하였다. 중국 해양특성에 맞는 해양산업분류 및 지표 개발을 통해 2011년 상하이를 비롯 산동, 저쟝, 광동 등 5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해양경제 시범조사를 시행했다. 그리고 2014~2015년 제1차 전국해양경제조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2015년 7월 그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표3] 중국의 해양경제 체계 구축 및 조사사업 추진 경과

구분	주요 내용
1989년	국가해양국 산하에 국가해양정보센터 설립
1990년	국가해양국 '해양통계지표체계 및 지표해석' 마련
1991년	국가해양국, 국가통계국, 국가계획위에서 공동으로 '해양통계작업 개시에 관한 통지'를 하달함으로서 해양통계작업 시작
1995년	- 최초로 '중국해양통계년감(1993)' 출판, 1997년부터 매년 발간
1999년	- 국가통계국 '해양통계종합보고제도' 마련 (2년마다 개정) - 국가해양국 '해양경제 통계분류 및 코드' 마련
2004년	최초로 '해양경제 통계공보(2003)' 발표
2006년	- '연해 행정지역 분류 및 코드' 국가표준 마련 - '해양 및 연관산업 분류' 국가표준 마련(2007.5.1부터 시행) * 28개 대분류, 107개 중분류, 380개 소분류 - '해양 총생산액 추계제도' 시행
2008년	- 새로운 해양 총생산액(GOP) 추계제도 시행
2011년	해양경제 시범조사 시행 - 산동, 상하이, 저쟝, 광동 등 5개 시범지역 선정
2014년	제1차 전국해양경제조사사업 시행
2015년 7월	제1차 전국해양경제조사사업 성과 발표 예정

자료 : 국가해양정보센터, 해양경제잡지 2011년 제1호. KMI, 해양총생산(GOP) 추계 및 증대방안 연구, 2011.12에서 재인용, 인민망(人民网), 2015.1.15 기사 참조

16) 和讯新闻, 2015.3.18일자 기사, 人民网, 2015.3.19일자 기사. 또한 2014년 칭다오시는 140개 해양경제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해 총 1,3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을 마련했다. 2014년 말까지 총111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실제로 200억 위안이 투자 완료되었다. 해운물류산업의 경우, 동쟈커우항(董家口港)에서 새로운 21개 선석을 건설했으며, 11개 선석을 신규운영하고 있다. 세계 최대 30만톤급 심수원유부두의 조업가동을 시작했으며, 칭다오 크루즈 모항 여객터미널은 2015년 5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그리고 '칭다오국제물류원구(青岛华泰国际物流园区)및 '산동교운현대물류유한공사(山东交运现代物流有限公司) 창고보관물류(仓储物流) 프로젝트 1기 공사가 완성되었다. 해양교육의 경우 해양과학기술 혁신에 맞춰 해양직업교육훈련기지가 완공되었으며, 해양과학기술 국가실험실 단지도 서구(西区)에서 3기까지 모두 준공된 상황이며, 동구(东区) 1기의 기초공사도 이미 끝났다.

17) 中国海洋食品网, 2015.1.22일자 기사 참조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5년 중국 국가해양국 총예산
▸ 이슈 포커스
: 중국 해양산업 주요 성과·전망 및 시사점
▸ 동향 & 뉴스

국가해양국 국장 려우츠꾸이(刘赐贵)에 따르면 제1차 전국해양경제조사의 시행목적은 크게 4가지이다.[18] 첫째, 해양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국가경제사회 발전전략을 제정한다. 둘째, 해양경제의 성장패턴을 현대화하고 이를 통해 해양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셋째, 해양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국가권익과 경제안전을 보호한다. 넷째, 중국해양기본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사회 전체의 해양의식과 해양환경보호 의식을 제고한다. 특히 이번 제1차 전국해양경제조사의 대상은 중국 내에서 해양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으로, 연관된 내륙의 성(省) 및 자치구, 직할시를 모두 포함한다.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 제1차 전국해양경제조사사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사업 목적	○ 과학적인 해양경제발전 장기계획 및 국가경제사회발전전략 제정 ○ 현대적 해양경제 성장패턴 도입 및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발전 확보 ○ 합리적인 해양자원 개발 및 국가권익과 경제안전 보호 ○ 중국해양기본정보시스템 보완, 해양의식 및 환경보호의식 제고
범위와 대상	○ 중국 내에서 해양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 ○ 연관된 내륙의 성(省) 및 자치구, 직할시를 모두 포함
조사 내용	○ 기업실사, 총 16개 산업조사 및 8개 주제별 조사 등 3가지
일정	○ 준비단계 : 2014년 상반기 ○ 기업실사 단계 : 2014년 하반기 ○ 데이터 수집단계 : 2015년 상반기 ○ 총괄발표와 응용단계 : 2015년 하반기
예상 성과	○ 전국 차원의 해양경제 데이터 수집 및 구축

자료 : 국가해양국 국장과 중국국영매체인 인민망(人民网)의 인터뷰 내용, 2014.1.15. KMI 정리

4 중국 해양경제 성장 전망과 향후 과제

국가해양국이 편찬한 『2013년 중국해양경제발전보고(中国海洋经济发展报告 (2013)』에 따르면 2020년에는 해양생산총액이 GDP의 1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30년에 이르면 해양생산총액이 20조 위안으로, GDP의 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19]

그리고 2015년 올 해 역시 해양산업 투자를 통한 해양경제 활성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일례로 중국 저장성은 2015년에 해양경제 465개 분야에 총 1조 434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2015년 저장성 해양경제발전 중대건설항목 실시계획(2015年度浙江海洋经济发展重大建设项目实施计划)』에 따르면 투자 대상 세부 사업은 기초인프라시설 119개 항목, 해운항만물류분야 115개 항목, 해양에너지 분야 35개 항목, 해양산업구조조정 97개 항목, 해양서비스업

18) 중국국영매체인 인민망(人民网)의 인터뷰 내용, 2014.1.15.
19) 华股财经, 2013.5.21 기사 참조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5년 중국 국가해양국 총예산
▸ 이슈 포커스
: 중국 해양산업 주요 성과·전망 및 시사점
▸ 동향 & 뉴스

57개 항목, 해양과학교육 및 생태계보호 34개 항목 등이다.[20] 푸젠성은 2015년 현대해양어업, 해양생물의약, 해양공정, 선박수리 및 건조 등 12개 분야, 총 254개 해양경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 투자액은 2,569억 위안이며, 올 한 해 377억 위안이 투자될 전망이다.[21]

2015년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로드맵에 따라 구체적인 발전이 시작되는 첫해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해양산업도 동반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지향하는 해양강국 건설과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전략의 성공적 이행의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중국 해양산업 발전이기 때문이다. 다만 고성장기조에서 '신창타이(新常态)로 진입한 중국경제를 고려해볼 때 앞으로 국가주도의 대규모 자금 및 노동력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입이 되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개발과 발전 중심기조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양환경생태보호, 해양공간의 효율적 활용 등 선진해양관리기법 도입을 통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해양경제 발전이 향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22]

5 우리나라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중국은 해양대국이 아닌 '해양강국'을 명시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대(大)'가 '크기'만을 강조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질적'으로 내실 있는 '해양강국'을 지향한다. 2012년 11월 개최된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해양강국'실현이 당의 주요한 방침으로 확정된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이다. 그리고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을 통해 이제 '대륙강국'과 '해양강국'을 모두 아우르는 21세기 신개념 강대국으로 거듭나려 한다.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우리는 신선한 '자극제' 수준을 넘어 우리나라 해양산업 발전을 통한 해양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 등을 통한 중장기 해양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제특별구역법은 2013년부터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입법화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해양경제특별구역법은 '해양경제특별구역' 시범지역을 지정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고부가가치 기반의 해양산업 육성을 추진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국무원 계획에 따라 2011년부터 해양경제시범구가 운영되면서 국가해양산업을 견인해 왔다. 우리나라 역시 중장기 해양경제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이는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을 필요로 한다.

---

20) 浙江即时报, 2015.3.12자 기사 참조
21) 中央政府门户网, www.gov..cn, 2015.4.12 기사 참조
22) 중국 해양경제 발전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에 대해 소개하면, 해양경제 발전을 위한 기초시설 건설의 정체 이외에도 과학기술 능력 부족, 산업구조의 저차산업 편향, 해양 보험업 발전 부족 등을 꼽을 수 있음. KIEP, '중국 해양경제의 발전 현황과 문제점', Vol. 16 No. 18, 2013.12.30, p8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5년 중국 국가해양국 총예산
▸ 이슈 포커스
: 중국 해양산업 주요 성과·전망 및 시사점
▸ 동향 & 뉴스

둘째, 국가차원의 해양산업 통계 구축을 위한 해양조사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장기 해양경제발전 전략 수립의 객관적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산업 분류체계는 구축되었으나, 이러한 분류체계에 근거한 전국적 해양산업 조사사업이 실시된 적은 아직 없다. 전국적인 해양산업 조사사업의 경우 실사, 데이터분석 및 성과도출 등에 드는 인력, 비용, 시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바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 사례처럼 몇 개 주요 연안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조사사업을 벌이고, 이후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셋째,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해양경제 시범구를 대상으로 기업에게 다양한 정책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산동성의 경우, 풍력발전기업에 대한 증치세 우대, 원양어업에 대한 세금우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절강성 역시 해양경제 전용자금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에 세금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23] 우리나라 해양경제특별구역법이 특구로 이전하는 핵심산업 관련 기업에게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항만시설의 사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24] 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이 더욱 필요하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넷째, 한·중 양국의 해양산업의 동반 성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미 환경은 조성되어 있다.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우리나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의 상호 연계성 있는 협력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우리나라가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AIIB는 아시아국가를 대상으로 한 항만, 해운물류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예정하고 있어, 한·중의 해양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성공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환경변화에 대해 이제 양국 해양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해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민수 전문연구원
kmishanghai@naver.com

23) KIEP, '중국 해양경제의 발전 현황과 문제점', Vol. 16 No. 18, 2013.12.30, p15 참조
24) 해양한국, '현장중계:해양경제특별구역법 제정 공청회', 2013.10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5년 중국 국가해양국 총예산
▸ 이슈 포커스
: 중국 해양산업 주요 성과·전망 및 시사점
▸ 동향 & 뉴스

자세한 동향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kmishanghai.org) 〈동향 분석〉 → 〈주요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파란색 부분은 번역된 기사임.

동향 & 뉴스

경제 · 정책

- 「중국제조 2025」 발표 예정, 10대 중점 산업 확정
- 톈진시, 물류업 발전계획 통해 북방 국제 물류 새로운 플랫폼 구축
- 해남성 해양어업과학원 미래 10년 발전계획 발표—15개 프로젝트로 해남을 해양강성으로 건설하기 추진
- 개발관리능력 대대적으로 제고, 해양사업의 건강한 발전 촉진—산동성 첫번째 해양사업발전계획 발표
- 산동성 첫 번째 해양관련 재산권 거래 플랫폼 칭다오에서 설립
- 농업부 <의견> 발표, 저우산의 국가 원양어업기지 건설지지-기지건설 계획 보완, '한 항, 한 성, 한 구, 한 센터' 만듦
- <저우산 국제해사 서비스 기지 건설의 실행방안> 심의 통과

해운 · 항만 · 물류

- 광동·톈진·푸젠 자유무역구 승인, '일대일로'전략과의 전면적인 결합 예상
- 중국 5대 지역 통관 일체화 실현 예정
- 칭다오, 최초로 한·중(韩中) 해운지수 발표
- 중국 4대자무구 통일적인 네거티브 리스트 공유
- 알리바바 그룹, 한국물류업 진입 예정
- 칭다오항 컨테이너 자동화 터미널 건설 확정
- 다롄항 '일대일로' 건설 연결, 새로운 동남아 항로 6개 개척 확정
- 중국, 2030년 세계 1위 크루즈 관광시장으로 성장 예상
- YANGMING, 14,000TEU 컨테이너선 추가발주 예정

해양 · 수산

- 푸젠성, 해상실크로드 핵심구역 건설 추진
- 칭다오, 해수담수화산업 발전 추진
- 광동성 첫 번째 해상실크로드 협동혁신 센터 창립
- 연태시 자발적으로 '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과 자금 지원 확대-5대 산업의 발전으로 해양경제 추진하기
- 남극정신 제창하여 과학연구의 전설 이어가기
- 중국 제31차 남극과학연구의 5가지 하이라이트
- 심천시 새로운 해양산업 지지 계획 시행—총 8개 영역, 해양 모든 산업체인 포함
- 산동성 해양사업의 신상태를 만들기-산동성 해양어업청 청장 왕수신(王守信)에 대한 인터뷰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5년 중국 국가해양국 총예산
▸ 이슈 포커스
: 중국 해양산업 주요 성과·전망 및 시사점
▸ 동향 & 뉴스

동향 & 뉴스

1 「중국제조 2025」 발표 예정, 10대 중점산업 확정

2015년 3월 27일, 국무원 정책 정례회의에서 중국공업·정보화부 쑤보이(苏波) 부부장은 조만간에 「중국제조 2025」를 정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제조 2025'는 선진제조와 첨단장비를 중심으로 제조강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쑤보이(苏波) 부부장은 「중국제조 2025」 전략이 중국 제조강국 건설 30년(2015년-2045년)의 산부저우(三步走)전략 중에 첫 번째 10년의 행동요령으로써 일반적인 산업발전계획과 다르고, 국내외 경제사회 발전 및 산업변혁 추세를 기반으로 장기 전략적 계획에 기반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전통제조업의 혁신과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기술 혁신과정에서 첨단화 발전 실현이 기대된다.

또한 「중국제조 2025」는 중국특색의 신형 공업화 발전방향에 따라 제조업 혁신 발전을 주제로 추진되고, 동시에 제품품질 및 업체수익을 제고시키고, 차세대 정보기술과 제조업 융합을 통해 스마트 제조업 발전 위주로 추진될 예정이다.

중국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중국제조 2025」은 9대 임무, 10대 중점 영역 및 5개 주요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9대 임무는 국가제조업 창조능력 제고, 정보화와 공업화 융합, 기반산업 강화, 품질·브랜드 건설 확보, 전면적인 녹색제조 발전 가속화, 중점 영역의 발전 전면적 추진, 제조업 구조 조정 추진, 서비스형 제조업 및 생산형 서비스업 적극 발전, 제조업 국제화 수준 제고 등이다. 10대 중점 영역은 차세대 정보기술, 고정밀 수치제어기와 로봇, 항공우주 장비, 해양장비와 첨단기술 선박, 선진궤도교통장비, 에너지 절감·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장비, 신소재 산업, 생물의약과 고성능 의료기계 및 농업기계 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5개 주요사업은 국가제조업 창의센터 건설, 스마트 제조, 공업 인프라 건설 및 첨단장비 제조 등인데, 이를 통해 장기적인 기술제한을 해결함과 동시에 양질의 제품 및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중국 제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春城晚报 , 2015. 3. 28. >

2 텐진시, 물류업 발전계획 통해 북방 국제물류 새로운 플랫폼 구축

최근 텐진(天津)시는 '현대 물류업 3년 발전 행동 계획(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에 따르면, 텐진은 중국 북방의 새로운 국제물류 플랫폼을 구축함과 동시에 '일대일로(一带一路)'의 북방 교두보 및 징진지(京津冀) 일체화의 국제물류 네트워크 전략 핵심의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동계획을 통해 향후 3년 간, 텐진시 항만을 중심으로 육해공 복합운송의 현대 물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대화 종합교통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주변국과 국제물류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 허브항을 형성함과 동시에 세관 특수 통제지역, 국제 내륙항 및 항만 등을 조화롭게 발전시킨다. 또한 우청(武清)물류기지, 동지앙(东疆)항만물류원구, 항공물류원구, 베이첸(北辰) 육로항만 물류원구 등 중점 물류원구 건설 계획을 조정·수립하여 물류원구 네트워크를 개선한다. 또한 선진 서비스 수준을 갖추고 있는 대형현대물류기업을 발굴 육성한다. 아울러 합리적 배치를 통해 현대화 물류시설, 파급효과가 있는 물류센터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5년 중국 국가해양국 총예산
▸ 이슈 포커스
: 중국 해양산업 주요 성과·전망 및 시사점
▸ 동향 & 뉴스

를 설립하고 고효율, 친환경, 편리한 도시 물류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전자세관 플랫폼, 톈진항 물류공공정보 서비스 플랫폼 및 육로(陆路)항 화물교역센터 등 지역성 물류정보 플랫폼의 기능을 개선하고, 물류기업 정보기술응용 수준을 제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톈진항은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등 신흥물류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전자상거래와 현대물류업 연결 창구를 개선함과 동시에 택배업의 빠른 발전 촉진을 통해 온라인 쇼핑의 급속한 발전요구를 만족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2017년까지 톈진 현대물류업 총생산액은 톈진시 총 GDP의 9% 이상, 항만 화물 물동량은 6억 톤 이상, 컨테이너 물동량은 1,800만 TEU 이상, 항공화물 물동량은 40만 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환발해지역의 고효율, 친환경, 현대화 국제물류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新华网 , 2015. 3. 23. >

3 해남성 해양어업과학원, 미래 10년 발전계획 통한 해양강성 건설 추진

해남(海南)성 해양어업 과학원은 최근 <해남성 해양어업과학원 발전계획(2015년~2024년)>을 수립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래 10년 동안에 과학원은 국가와 해남성 지방 자금의 지원을 받아 약 6.25억 위안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해남성 중점 실험실, 담수화 어업 과학연구 기지, 대왕바리(giant grouper) 등 국가급 우량종 양식장 건설 등 15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과학기술 혁신으로 해양강성 건설을 추진한다.

계획에 따르면 해남성은 해양어업 과학기술의 자발적 혁신, 인재와 혁신단체의 건설, 과학기술 플랫폼 및 기초시설 건설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 과학연구는 해양생태환경, 해안환경보호, 해양 종합관리 기술연구, 디지털 해양정보, 어업자원 개발관리, 수산품 가공, 수산 우량종 선택 및 양식, 수산동물 의학 등에 중점을 둘 것이다.

해남성 해양어업과학원의 15개 프로젝트에는 중점실험실 건설, 대왕바리(giant grouper) 국가급 우량종 양식장 건설, 산사(三沙) 도서 및 초석 생태시스템의 특유자원에 대한 복원기술 연구·시범, 과학기술 성과를 산샤에서 통합응용·시범, 산호초 생태자원 회복 기술 연구·시범·보급, 해남도 대륙붕 사면(大陆坡) 해역 노랑점빨강오징어(Symplectoteuthis oualaniensis) 어장의 판별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수산역병 방지·통제 센터 건설, 해남성 열대 해양생물자원의 개발·이용·혁신 플랫폼 건설, 해남성 간척지 개발 계획 작성, 해남성 석호(舄湖) 종합 정돈 시범연구, 산샤 과학연구선 건설, 산샤 어업혁신 중심 건설 등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다.

< 자료 : 中国海洋报 , 2015. 4. 8. >

4 광동·톈진·푸젠 자유무역구 승인, '일대일로' 전략과의 전면적인 결합 예상

2015년 3월 24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中共中央政治局) 회의에서 광동(广东), 톈진(天津), 푸젠(福建) 자유무역구 총체방안 및 상해자유무역구 확대범위 관련 방안이 통과되었다.

광동자유무역구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주변국가와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목표로 화물통관, 상품 검사검역, 품질수준, 전자상거래 등 여러 영역에서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무역 자유화 수준을 제고시켜 나간다. 또한 자유무역시험구의 국제허브 역할 발휘를 통해 21세계 해상 실크로드 주변국가와 지역의 상품디스플레이,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5년 중국 국가해양국 총예산
▸ 이슈 포커스
: 중국 해양산업 주요 성과·전망 및 시사점
▸ 동향 & 뉴스

판매 및 구매 센터를 건설함과 동시에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물류허브도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텐진자유무역구는 독특한 지리적인 우위를 점할 뿐만 아니라 징진지(京津冀) 협력전략과 '일대일로'전략을 결합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푸젠자유무역구의 총체방안에 따르면, 실험지역 혁신, 양안(중국대륙과 타이완) 경제협력 시범구 건설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주변국가 지역과 개방 협력 경제지대를 구축할 것이다.

3대자유무역구 총체방안은 각 지역 특색을 발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전략을 긴밀하게 연결시킴과 동시에 해운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中国航务周刊 , 2015. 4. 1. >

5 중국 5대 지역 통관 일체화 실현 예정

2015년 5월 1일부터 중국 5대 지역에서 통관 일체화가 실현될 예정이다. 따라서 2014년부터 이미 통관일체화 운영 중에 있는 징진지(京津冀)지역 및 장강경제벨트를 제외하고, 동북(东北)지역,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범주장삼각주지역(泛珠地区) 등 지역도 통관일체화가 실시될 것이다.

중국관세청의 2015년 제9~10호 공고에 따르면, 2015년 5월 1일부터 산동(山东), 허난(河南), 산시(山西), 산시(陕西), 간쑤(甘肃), 닝샤(宁夏), 칭하이(青海), 신장(新疆) 및 티베트(西藏) 등 실크로드 경제벨트 지역 9성(구)의 10대 세관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 통관일체화를 실시할 것이다. 상술한 10대 세관은 칭다오(青岛), 지난(济南), 정저우(郑州), 타이위안(太原), 시안(西安), 란저우(兰州), 인촨(银川), 시닝(西宁), 우루무치(乌鲁木齐), 라사(拉萨)이다. 동시에 랴오닝(辽宁),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龙江), 네이멍구(内蒙古)(약칭: 동북지역) 등 4성(구)의 다롄(大连), 선양(沈阳), 창춘(长春), 하얼빈(哈尔滨), 후허하오터(呼和浩特) 및 만저우리(满洲里) 등 6대 세관에서 통관일체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5월 1일부터 광동(广东)지역의 푸젠(福建), 광시(广西) 및 하이난(海南) 등 3성 세관에서 정식으로 범주장삼각주지역 통관일체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2015년 7월 1일까지 징진지, 장강경제벨트, 범주장삼각주지역, 동북지역 및 실크로드 경제벨트 등 5대 지역 간에 '호연호통(互联互通, 서로 연결되고 통함)' 실현을 통해 전국지역 통관일체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통관일체화 정책은 중국의 5대지역의 31개 성(구, 시)에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 : 中国航务周刊 , 2015. 4. 15. >

6 칭다오, 최초로 한·중 해운지수 발표

최근에 칭다오 국제해운센터, 칭다오 해운발전 연구원, 칭다오 지수연구원은 공동으로 칭다오 해운지수 중 중한해운지수를 발표했다. 이는 칭다오뿐만 아니라 산동성이 최초로 운송가격을 기초로 하는 해운지수이다. 이 지수의 발표는 칭다오 지역의 해운항만(港航) 발전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며, 해운산업 패턴전환과 업그레이드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칭다오시가 국제해운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5년 중국 국가해양국 총예산
▸ 이슈 포커스
: 중국 해양산업 주요 성과·전망 및 시사점
▸ 동향 & 뉴스

칭다오 해운지수는 운송가격, 운송량, 비용 등의 분석을 통해 칭다오 지역의 해운시장의 특징을 반영한다. 이 지수는 동북아 해운지수를 특색으로 지역적 장점을 통해 한·중·일 삼국 간 컨테이너 해운지수를 중심으로 한다. 이는 칭다오가 한·중·일 무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지위를 보여줄 수 있다. 앞으로 동남아, 지중해, 구미 등 주요 컨테이너 항로의 종합 컨테이너 해운지수가 만들어 질 것이다. 동시에 벌크화물영역으로 확장하여 칭다오 해운시장의 주요 화물을 포함시키는 종합적 칭다오 해운지수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중한항로지수는 칭다오 해운지수 중 일부분이다. 이는 15개 중한항로를 운영하는 해운회사 중 대표적인 회사 3개를 샘플로 삼아, 샘플 기업의 2014년 1월~2015년 3월간 운송운임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서, 2014년 1월~2015년 3월 기간에 중한항로의 운송가격 추세와 항로 경기정도의 지수추세를 산정했다.

지수에 의하면 지금 중한항로의 운송운임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선박공급량이 운송수요을 초과하고 있는 시장상황이 장기간 존재해 왔으며, 중한항로의 주기 변화가 뚜렷하고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구별도 분명하다. 2014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석유가격하락을 통해 해운기업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가격이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전체 경기곡선은 여전히 하락 추세를 보인다.

칭다오 해운지수는 국제적 영향력,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지닌 해운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칭다오 스마트해운항만(智慧港航) 빅 데이터 건설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장기간 동안에 지속되었던 해운정보 불투명 국면은 개선될 것이며, 기업과 정부의 정책결정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中国海洋报 , 2015. 4. 15. >

7 푸젠성, 해상실크로드 핵심구역 건설 추진

푸젠성 정부는 최근에 「2015년 푸젠성 해양경제 업무 요점」을 발포했다. 그 중에 '해상실크로드 핵심구역 건설 추진, 대외 협력·교류 수준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3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했다.

첫 번째, 중국-아세안국가 해상협력기금 프로젝트 첫 건설을 추진한다. 두 번째, 해상실크로드 연선국가와의 교류를 강화하여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보호, 해양재해 조기경보, 해양문화 등의 방면에서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 셋 번째, 수산품 수출기업들이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을 지지하여, 현대 해양어업 수출 양식 기지 건설을 추진한다. 숫조기, 전복 등 우세 품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기지를 설립하고 수산품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에 있어 전국 최고의 실적을 유지하도록 한다.

최근, 「실크로드 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을 발표했으며, '푸젠성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구역 건설 지지'라는 지시를 명확하게 제기했다. 푸젠성 해양·어업 기관 관련된 책임자에 따르면 금년에 해양총생산액 7,300억 위안을 통해 푸젠성 지역 GDP에서 28%의 비중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실제로 중국이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협력을 제창한 후에 푸젠성은 바로 자발적으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에 동참하였고, 아세안국가와의 해양경제협력을 강화하여 해양경제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려고 한다. 2014년에 푸젠성은 중국-아세안국가 해상협력기금 프로젝트를 착실하게 추진하였으며,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금마안(金马安) 어업종합기지 프로젝트를 포함한 중국-아세안국가 어업산업 협력 및 수산품 거래 플랫폼 등 4개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진행해 왔다. 그 중에 중국-아세안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5년 중국 국가해양국 총예산
▸ 이슈 포커스
: 중국 해양산업 주요 성과·전망 및 시사점
▸ 동향 & 뉴스

국가 해산물 거래소는 푸젠 마웨이에서 이미 개업했는데, 대만지역과 아세안국가 회원기업 총 80여개가 참가하였다. 동시에 푸젠성은 해외 원양어업기지와 어업양식 기지에 투자해 원양어업 발전을 추진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구라는 역할은 푸젠성을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위한 중추지역으로 거듭나게 했다. 그리고 해상실크로드 핵심구역의 건설은 자유무역구의 건설과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푸젠 해양경제 발전의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자료 : 中国海洋报 , 2015. 4. 7. >

8 칭다오, 해수담수화산업 발전 추진

최근에 칭다오 서해안 신구는 「해수 담수화 산업발전 업무 방안」(이하 「방안」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해수 담수화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산업·교육·과학연구의 심도 있는 융합을 추진할 것이다.

「방안」에 의하면, 2020년까지 칭다오 서해안 신구에서 해수 담수화 산업체인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2020년까지 칭다오 서해안 신구에서 해수 담수화의 관련 기술을 핵심으로 하여 설비제조, 공정 설계 및 설치, 기술 서비스, 담수화 제품 제공을 위주로 하는 해수 담수화 산업체인이 형성될 것이며, 제조생산에서부터 판매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의 발전도 이끌어 줄 것이다. 국가급 해수 담수화 장비제조 산업화 기지를 구축해서 연간 30억 위안, 관련 산업을 포함할 경우 연간 90억 위안의 생산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해수 담수화 에너지 소모와 비용을 기존보다 20% 이상 감소해야 하며, 중요 설비 국산화율은 75%이상으로 높인다. 해수 담수화 생산능력은 14만㎥/일에 도달하여, 일일 용수 공급 총량의 16%를 차지하도록 하며, 공업 용수량에 대한 기여율 45% 이상, 음용수에 대한 기여율은 60% 이상에 도달하도록 한다.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방안」을 통해 업무에서의 중점사항을 명확하게 했다. 첫째는 해수 담수화의 '4대 공정'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수자원 다소비 기업의 해수 담수화 담수 대체 공정, 해수 담수화 자원 종합이용 공정, 해도(도서) 독립 에너지 자원 해수 담수화 시범공정 및 해수 담수화 장비 제조업 추진 공정을 포함한다. 둘째는 해수담수화 장비 제조의 '3대 산업 기지'를 구축한다. 이는 막재료(膜材料)와 막(膜)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기지, 중소형 해수 담수화 전체장비 제조기지, 대형 해수 담수화 장비 기지를 포함한다. 넷째는 과학기술 혁신 서비스 플랫폼의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그 중에 해수 담수화 기술혁신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해수 담수화 과학기술 성과전환 인도기금의 설립, 또는 해수 담수화 과학기술 공공서비스 플랫폼과 해수 담수화 과학기술 혁신 시험시범 기지의 설립이 포함된다.

칭다오시 수리국(水利局)에 따르면 칭다오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나, 수자원이 극도로 빈곤한 도시이다. 1인당 평균 수자원의 점유량은 287㎥이며 전국 평균 수준의 11%에 해당한다. "국가가 '황하의 물을 끌어다 칭다오시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자(引黄济青)'는 정책을 실시했지만 칭다오의 수자원 총량과 1인당 점유량은 여전히 전국 평균치에 많이 뒤처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 담수화는 칭다오의 담수자원 결핍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 담수화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전략적, 현실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자료 : 中国海洋报 , 2015. 4. 7. >